박해민 "수비라도 잘해야죠"

최근 연이은 슈퍼캐치로 경기흐름 바꿔

삼성 박해민은 상대의 2루타와 3루타를 외야플라이로 만드는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해민이 26일 대구 넥센전 7회초 김민성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고 있다. 대구 | 뉴시스

"나의 MVP는 박해민이다."(삼성 알프레도 피가로)

삼성 박해민(25)은 요즘 이런 찬사를 종종 듣는다. 류중일 감독은 물론 많은 투수들이 박해민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운다. 피가로도 26일 대구 넥센전에서 시즌 7승째를 따낸 뒤 박해민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

이유가 있다. 박해민은 2-0으로 앞선 7회초 무사 1루서 우중간으로 깊게 날아간 넥센 김민성의 홈런성 타구를 펜스에 부딪치며 점프해 잡아냈다. 삼성의 승리 분위기를 굳히고, 넥센의 추격을 봉쇄하는 '더 캐치'였다. 또 4월 30일 대구 LG전에선 0-1로 뒤진 1회 2사 1·2루서 역시 정의윤의 좌중간 홈런성 타구를 점프해 잡아내 역전승의 발판을 놓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박해민의 호수비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대부분 상대 공격의 맥을 확실하게 끊는 역할을 한다. 삼성 투수들이 외야의 박해민을 향해 고맙다는 사인을 보내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점점 '슈퍼캐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작 스스로는 "이거라도 못 하면 집에 가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 "방망이를 잘 못 치고 있으니 수비라도 잘해야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해민의 호수비와 집념은 안타와 타점 하나를 뛰어넘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기에 더 값지다. 박해민은 "펜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놓고 경기하기 때문에 타구가 글러브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다"며 "내가 잡을 수 있는 타구는 끝까지 집중해서 잘 잡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피츠버그 강정호가 27일(한국시간) PNC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와의 홈경기 1회말 2사 1·3루서 선제 결승 1타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주) | AP뉴시스

강정호, 결승타 포함 멀티히트

마이애미전 2안타 1타점…타율 0.316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중심타자로 자기를 굳힌 강정호(28)가 결승타를 날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27일(한국시간) PNC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와의 홈경기에 5번 3루수로 선발출장해 3타수 2안타 1타점에 몸에 맞는 공 하나를 기록했다. 멀티히트에 선제 결승타까지 터트리며 클린업 트리오의 몫을 완벽히 소화했다. 시즌 타율은 0.304에서 0.316(95타수 30안타)으로 올랐다. 피츠버그가 5-1로 승리했다.

결승타는 1회말 첫 타석에서 나왔다. 강정호는 2사 1·3루서 마이애미 선발 호세 우레냐의 초구 직구를 받아 쳐 1타점 중전적시타를 뽑았다. 선취점으로 연결된 결승타였다. 4-0으로 앞선 3회말 1사 후 2번째 타석에선 2루타를 작렬했다. 좌중간으로 타구를 날린 강정호는 적극적 주루 플레이로 2루를 밟았다. 5회말 1사 2루 3번째 타석에선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고, 8회말 마지막 타석에선 마이애미 4번째 투수 카터 캡스의 시속 99마일(약 159km)짜리 강속구에 왼쪽 팔꿈치 프로텍터를 맞고 출루했다.

한편 피츠버그 클린트 허들 감독은 이날 기존 3루수 조시 해리슨을 우익수로 돌리는 한편 강정호를 3루수, 닐 워커를 2루수, 조디 머서를 유격수로 선발출장시키며 내야에서 주전 경쟁 중인 4명을 한꺼번에 기용하는 카드를 선보였다. 1번을 맡은 해리슨은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2번으로 출전한 워커는 2점홈런(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8번으로 나온 머서는 3타수 1안타 1득점을 각각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한살 터울의 나성용(LG·왼쪽)-나성범(NC) 형제는 프로 최초로 형제 배터리를 꿈꿨다. 지금은 각각 내야수와 외야수로 변신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함께 최고의 타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스포츠동아DB

LG 나성용·NC 나성범 '형제가 꾸는 꿈'

베이스볼 피플

학창시절 프로 첫 '형제 배터리' 꿈꿨지만
나성범 외야전향으로 타자로 선의의 대결
"둘 다 잘해 부모님이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둘 다 잘 되면 좋겠어요."(나성용)

어느 형제나 마찬가지겠지만 LG 나성용(27)과 NC 나성범(26)은 각별한 사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야구를 하며 프로선수의 꿈을 키웠다. 이들은 야구를 하면서도 늘 붙어 다녔다. 포지션은 투수와 포수. 동생 나성범이 던지면, 형 나성용이 받았다. 둘은 '나중에 프로에 가서도 같은 팀에서 배터리로 뛰자'고, '그렇게 되면 프로 최초 아니겠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그런 바람과 달리 나성범은 2012년 NC에, 나성용은 2011년 한화에 지명을 받아 프로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1군 무대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형 나성용의 이야기

나성용은 한화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프리에이전트(FA)로 한화에 온 송신영(현 넥센)의 보상선수로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후 2013년 경찰청에 입대했고, 2015시즌 팀으로 돌아왔다. 나성용은 22일 사직 롯데전에서 1군 복귀전을 치렀다. 2011년 10월 6일 이후 무려 3년7개월 만에 나선 1군 경기이자, 2012년 LG에 합류한 이후로는 첫 경기였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1회 2사 후 첫 타석에서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4번째 경기였던 26일 잠실 kt전에서도 3-1로 앞선 6회 2사 2루서 쐐기를 박는 1타점을 올리는 등 4타수 2안타로 제 몫을 했다. LG 양상문 감독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좋았다"며 "홈런 친 뒤 변화구에 자꾸 속는 모습이었는데, 금세 변화구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1군 무대에 적응하면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 고무적이다"고 칭찬했다. 당연히 선발 기회도 연장됐다.

●동생 나성범과의 이야기

형이 1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부진했던 동생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 형이 1군에 올라온 22일부터 4경기에서 16타수 7안타 1홈런 6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나성용은 동생의 부활에 대해 "(나)성범이가 많이 좋아졌더라. 잘할 줄 알았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그는 "아직 몇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며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는 "지금 1군에서 살아남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또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 건 1년, 아니 몇 년은 꾸준히 잘해야 듣는 소리 아닌가. 나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손사래를 쳤다. 12일부터 3일간 펼쳐진 마산 NC전에서 성사된 동생과의 첫 맞대결에 대해서도 "그라운드에선 적이니까"라며 웃었다.

물론 서로의 존재는 큰 힘이다. 나성용은 "초중고, 대학까지 함께 야구를 했다"며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잘해서 좋다고 격려해준다. 둘 다 잘 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앞으로도 성범이와 나 모두 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노히터 영예는 안녕…마야, 위기관리 시험대

■ 집중타 제물된 마야, 무엇이 문제인가

득점권 피안타율 0.556…가장 큰 문제
심리적으로 타자에 쫓겨 공 가운데 몰려

'노히터'의 영예는 잠시뿐, 지금은 극심한 위기에 빠졌다.

두산 외국인투수 유네스키 마야(34)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부진이 심상치 않다. 26일 마산 NC전에 선발등판해 1.2이닝 동안 4안타 3볼넷으로 7실점하며 시즌 최소 이닝만 소화한 채 강판됐다. 두산은 결국 2-13으로 완패했다. 삼성에 6-25로 대패했던 20일 잠실 삼성전도 마야가 선발등판한 경기였다. 2.2이닝 8안타 1볼넷으로 9실점. 지난달 9일 잠실에서 넥센을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작성하며 KBO리그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지만, 마야는 이후 등판한 21일 목동 넥센전부터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15.2이닝 동안 방어율 16.66으로 극심한 침체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평균 구속이 조금 떨어졌지만 체력이나 구위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몸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 경기 중 흥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자신의 투구리듬을 찾지 못하고 타자에게 번번이 끌려간다. 김 감독은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한데 가운데로 공을 꽂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NC 테임즈에 허용한 결정적 만루홈런(2회)도 볼카운트 1B-0S서 던진 시속 137km의 밋밋한 커터가 한가운데로 몰린 결과였다.

두산 외국인 투수 유네스키 마야(오른쪽)는 4월 9일 잠실 넥센전에서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이후 심각한 난조에 빠져있다. 26일 마산 NC전에서도 2회말 1사 만루 위기에 빠졌고, 권명철 투수코치(왼쪽)와 포수 양의지가 마운드로 올라와 그를 다독이고 있다. 마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최근 4경기에서 만루 상황을 6차례나 맞닥뜨린 것도 큰 원인인데, 피안타율이 정확히 10할이다. 3안타(1홈런)에 희생플라이 2개와 볼넷 1개를 내줬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안타율도 0.323으로 높지만,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은 무려 0.556이다. '위기관리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히터 경기를 포함해 시즌 초반 3경기에선 피안타율 0.178에 불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선사했던 노히트노런의 여운은 길었지만, 최근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당시의 감동마저 희석되고 있다. 침착함을 되찾고 반전을 꾀해야 할 시기다.

마산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김경언 종아리 근육파열

한달 공백…김성근 "이러다 나만 남겠다"

"이러다 나중에 나만 남을 것 같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화 공격의 핵인 외야수 김경언(33·사진)이 종아리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다. 약 1개월간 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한화 김성근 감독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경언은 26일 대전 KIA전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투수 임준혁의 투구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은 뒤 교체됐다. 당시 통증은 심해도 단순타박상 정도로 보였지만, 검진 결과 종아리 근육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감독은 27일 "약 한 달 갈 것 같다. 나중에 나만 남아 있을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저 모건의 대체선수로 영입한 외국인타자 제이크 폭스도 23일 수원 kt전에서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1~2개월 결장하게 됐다. 김경언마저 이탈하면서 한화 외야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

더욱이 김경언은 오랜 무명생활 끝에 올 시즌 만개한 방망이로 한화 타선의 핵으로 맹활약하고 있었다. 26일까지 타율 0.352로 타격 3위. 홈런은 8개, 타점은 35개다. 김 감독은 "우익수, 좌익수, 1루수로 수비에서도 활용도가 높았다. 그동안 선발라인업을 짤 때 5번타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젠 5번부터 고민하게 됐다"고 아쉬워하면서 "집에서 4~5일간 푹 쉰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는 이날 육성선수인 내야수 신성현(24)을 정식선수로 등록하면서 1군 엔트리에 올렸다. 신성현은 일본 유학파로 2008년 일본 교토국제고를 졸업한 뒤 2009년 일본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에 히로시마에 지명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당시 계약금 2000만엔을 받았을 정도로 유망주로 평가받았으나, 2013년까지 히로시마 1군에 오르지 못했다. 2014년 귀국 후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에 입단한 그는 올해 한화에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대구 신축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내년 2월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공원역 인근에 완공 예정인 대구 신축야구장의 명칭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확정됐다. 삼성은 27일 "대구시와 삼성전자, 삼성 라이온즈가 상호협의를 통해 이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축구장은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NC 이재학 엔트리 제외…문수호 콜업

NC 우완투수 이재학이 27일 마산 두산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6일 두산전에서 선발등판해 2.1이닝 1안타 4볼넷으로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좌완투수 문수호가 1군에 등록됐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